

□ 심의 총평 및 심의 위원 명단

○ 심의 위원(서류심의 4인 / 인터뷰심의 3인(류성호 심의위원 불참)) *가나다순

순번	성명	소속/직위
1	류성호	아트터미널 대표
2	서명구	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팀장
3	윤종필	컬렉티브커뮤니티스튜디오525 대표
4	조재경	고무신학교 교장

○ 인터뷰 심의 총평(심의위원 대표 조재경)

**2018년 경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
인터뷰 심의 총평**

○ 일시 및 장소 : 2018. 3. 6.(화) 10:00 / 경기문화재단 3층 연습실
○ 심의위원장 : 조재경 (인)

2018년 경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다음의 기준으로 심의를 집중하였다. 1)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인가? 2) 운영인력(기획자, 강사)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? 3) 본 사업을 이해하고 활동으로 풀어내는데 자기 이야기가 있는가? 4) 사업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은 적정한가? 5)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어있는가?

위의 기준으로 심의한 결과 총 20개 단체를 선정하였다.

각 단체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하였다. 예산 조정의 근거는 과다한 인건비,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비와 홍보비, 결과 자료집 발행 등이다.

선정된 20개 단체 중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4개 단체에 대하여 역량강화 지원금을 추가하였다.

또한 사업 수행에 있어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도내 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을 고려하여 몇몇 단체를 선정하였다. 이 단체는 향후 컨설팅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함께 올려 가기로 하였다.

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은 참여단체가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. 개인 삶의 내용이 지역의 이야기와 잘 결합되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.

그러나 기관(복지관 등)과 협업 진행 되는 활동은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독립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.

2018년 사업 진행 중 문화재단과 전문가 활동단체의 적극적인 협의와 교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기대 한다.